영화가 말해주지 않는 것을 영화 속에서 보기

-강유정

우리는 어떤 영화를 보고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 한다. 그럼 “말이 안 된다”는 상황은 어떤 것일까? 슈퍼맨처럼 하늘을 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일까, 아니면 헤어진 연인이 바로 곁을 지나치는 데도 못 본 척 하는 장면들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말이 안 된다”라는 관객의 감상평 안에는 영화의 서사, 이야기에 대한 관객의 감식안이 숨어 있다. 그것은 “인과성(casuality)” 혹은 “개연성(probability)”에 대한 상식으로 판단된다.

남미의 소설가 보르헤스의 작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지상의 왕과 환상의 왕이 미로 만들기 경쟁을 한다. 두 왕은 서로 탈출할 수 없는 미로를 만들겠다고 마음먹는다. 결국 미로가 완성되는 날 두 왕은 서로가 만든 미로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어떤 왕이 이겼을까?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지상의 왕이 만든 미로에 환상의 왕이 갇혀 죽는다. 보르헤스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개연성과 인과성에 대해서 중요한 암시를 던져준다.

보르헤스의 소설 속에 나타난 결론은 이 세상,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령, 9.11 테러와 같은 상황들은 그 어떤 영화보다 끔찍하다. 『투마로우 (2004)』와 같은 재난 영화를 보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쓰나미나 쓰촨성 대지진은 영화보다 더 복잡하고 참혹하다. 아무리 영화가 참혹하다고 할 지언정 현실보다는 못하다. 현실은 늘 영화보다 심각하고 우연적이며 복잡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비록 현실이 우연투성이 일 지라도 영화는 우연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난 후 “말이 안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영화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영화의 이야기 내에서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관성이라는 것은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캐릭터), 사회적 배경, 이야기의 앞과 뒤가 유기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영화는 일종의 인공물이다. 현실에서는 우연이 남발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무 연관 없이 발생하지만 영화는 발생하는 사건에 일종의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 등장 인물의 성격, 사회적 배경과 같은 것을 고려해 우연한 사건에 필연성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 일관성이 바로 개연성(probability)이다. 개연성이란 실제와 비슷하다 혹은 현실과 똑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에서 일어날 법하다라는 것에 가깝다. 영화의 이야기 진행과정을 통해 관객들을 설득하는 논리적 인과성이 바로 개연성인 셈이다.

가령, 영화 『매그놀리아』에는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개구리 비가 쏟아져 내리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은 너무도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이라서 “말이 안된다”고 반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장면은 감독이 의도적으로 톱니바퀴처럼 질서 정연하게 흘러가는 현실에 약간의 고장을 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복잡다단하게 펼쳐지는 갈등과 반목을 보여준 후 감독은 기적적 화해의 순간을 개구리비로 표현해낸다. 개구리비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극복할 수 없는 오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늘에서 개구리가 쏟아지는 기적적 순간을 통해 영화의 주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해진다. 범죄 사실을 예측하는 『마이너리티리포트』나 돌연변이들이 등장하는 『X 멘』과 같은 영화들은 말이 안 되는 영화일까, 라는 질문 말이다. S. F(Science

Fiction)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아직 현실이라기보다는 이론적 가능성 수준의 이야기들이 많다. 그래서 S. F. 영화는 이야기의 개연성을 주기 위해 시간적 배경을 먼 미래로 잡거나 공간적 배경을 지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설정한다.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가능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때로는 일부러 인과성과 개연성을 무너뜨려 관객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주는 영화들도 있다. 기본기가 잘 된 화가가 입체파나 미래파의 그림을 그려내듯 이러한 즐거움은 파격의 기쁨을 만들어낸다.

때로 어떤 영화들은 지나치게 우연을 남용한다. 가령 이런 식 말이다. A라는 인물이 B라는 인물과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C와 D는 천하의 원수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A와 C는 형제이고 B와 D는 자매이다. 뿐만 아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결국 어떤 관계로든 묶인다. 살면서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우연들이 드라마에는 등장한다. 세상에는 우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우연히 어떤 도로를 지나다가 사고를 목격하기도 하고, 우연히 비행기를 타지 않아서 사고를 면하기도 한다.

영화 속에서 시대적 배경에 걸맞지 않게 너무 현대적인 물품이 나온다거나 등장인물의 성격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울 때 관객들은 그 상황을 납득하지 못한다. 삶이 우연일 지 언 정 영화 속 이야기에는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관객들을 납득시키는 설득력이 바로 영화의 인과성이고 개연성이다.

우리는 흔히 믿기지 않는 상황을 보고 영화같다 혹은 소설같다고 말한다. 이 영화같다라는 말 속에는 “극적이다”, “거짓말 같다”라는 반응이 숨어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말들이야말로 영화의 허구성에 대한 직관적 인식이 누구에게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도 모두 다 누군가의 의도와 사상에 의하여 조직된 인공물이라는 사실이다.

모든 인공물에는 의도가 있다. 우리가 이 책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의도는 보이는 의도와 보이지 않는 의도의 두 가지 차원이 있다. 보이는 의도란 말그대로 작가, 감독, 제작자가 영화를 통해 구현하고 싶어하는 표면적 주제이다. 보이지 않는 의도는 동시대의 분위기, 편견이나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전제된 일종의 사회적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때로는 농담이 진담보다 더 많은 진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지젝을 인용해서 이 말을 조금 비틀어보자면 오답이야말로 정답을 향해가는 가장 훌륭한 길일지도 모른다. 영화를 통해 세상의 풍경을 읽는다는 것은 곧 영화를 통해 세상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좋은 글은 바로 관찰에서 나온다. 좋은 논술, 좋은 글, 좋은 컬럼의 지름길은 없다. 다만 빤히 들여다보고 오래 생각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측면에 호기심을 갖는 것. 이 세 가지만 염두에 둔다면 아마도 조금은 다른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삐딱하게 볼수록 영화와 세상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